

테마칼럼

건강과 생활

성 바로알기

흐남 문화

법과 질서



양동욱

수첩 효과와 정서 효과

화를 경험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 자극을 찾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캘빈 콜리지(Calvin Coolidge)가 어느 날 영부인과 야장제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압타과 수첩이 교미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수첩의 정력에 감탄한 영부인이 "저 수첩은 하루에 몇 번이나 교미를 하죠?"라고 농장 주인에게 물었고 "수십 번 한다."는 주인의 말에 부러움을 느낀 영부인이 대통령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하게 된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자존심이 상한 대통령이 "그럼 저 수첩은 항상 같은 압타하고만 교미하느냐?"고 물었고, "아닙니다. 매번 다른 압타하고 합니다."라는 주인의 말에 "그럼 그 이야기를 영부인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 일화를 빗대어 같은 시각 자극에 싫증이 난 남성이 새로운 상대를 찾고자 하는 현상, 즉 새로운 상대를 통해 자극을 얻고자 하는 것을 '콜리지(Coolidge) 혹은 수첩 효과'라고 이를 불렀다. 여성 역시 새로운 시각 자극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당신이 가장 멋져!"와 같은 상대의 언어적 표현과 따뜻한 손

길을 더욱 원한다. 여성은 청각과 촉각으로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어."와 같이 정서 자극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정서(affective) 효과'라고 이름 하였는데, 여성은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줄 때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들이 같은 시각 자극에 쉽게 싫증을 느끼는 반면, 여성들은 정서 자극에 싫증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따뜻한 언어 표현이나 부드러운 신체 접촉이 중단되거나 없을 때 성적 흥미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서 자극의 욕구가 비단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남성 역시 상대적으로 "당신이 최고야!"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칭찬은 어깨를 으쓱하게 하며 기분을 좋게 한다. 서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표현은 두 사람의 성적 관계를 돈독하게 해 준다. 두 사람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성은 여성에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며 소소한 관심과 칭찬, 부드러운 신체 접촉, 그리고

몰입이나 언어 혹은 글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빈말과 같은 공허한 표현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밀착된 진실한 표현이 필요하다. 여성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화장이나 머리 모양, 옷차림의 변화로 남성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또 돌만의 장사나 분위기, 적극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이 나이에 썩스럽게!" 상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불태웠던 옛 시절의 가슴 떨림과 서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랑의 표현들을 떠올려 보자. 그 시절만큼 강렬한 열정은 아니겠지만, 숨어 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그 행복을 실천해 보자.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김성근

학교폭력, 그리고 화해하는 법

교과학습을 즐기고 특성화 교과를 개발하면서 육체적인 단련과 재능 발표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시도는 나중에 학습 참고 기능을 하는 화뇌와 직관 우선의 기능을 하는 우뇌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배분이 필요하다는 뇌 과학자들의 주장과 이해를 같이 했다. 좌뇌가 발달한 학생들은 암기나 학습된 내용의 이해가 빠른 반면 우뇌가 발달한 학생들은 암기나 학습내용의 이해와 논리 전개가 어렵다. 물론 노력으로 극복할 수는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현장은 이것에 대한 균형과 조화로운 교육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현실이다.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이성과 감성, 분석과 통합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

기성세대의 경우 지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조화로운 교육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 대신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감성과 통합에 관한 내용을 학교 보다도 동네에서, 이웃하고 있는 토대 친구들을 통해서 스스로 익혀 왔던 것 같다. 장난감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었지만 빙 통통 하나로 놀이 문화를 만들었고 또 서로 다루는 중에 화해도 하면서 인생의 내면을 키워 왔다. 현재 교육 현장에는 과거처럼 학교 밖에서 감성과 통합을 익히는 토대 문화가 없다.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대안으로 학교 내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스포츠 동아리 등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능수능민이 없는 교과 수업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예능

과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라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교 안에서 먼저 균형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과 경찰 측의 방안을 보면 조금은 답답하다는 생각이 나온다. 학교 안에서 폭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혹 서로 말 다툼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싸움 끝에 화해의 과정이 없다면 이것은 폭력이다. 이 화해의 정신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교현장 안에는 폭력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지도의 힘을 잃게 된다. 화해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 즉, 감성과 직관 그리고 통합 기능이 있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교과 과목들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 가까이 있는 급우가 늘 나를 긴장하게 하는 무한 경쟁자가 아니라, 언제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따뜻한 친구가 되고 선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원불교 품요교당 교무)

기고



이점관

F1이 질주한다, 전남이 도약한다

2012년 포틀러인 그랑프리 16번째 라운드인 '코리아 그랑프리'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지난 두 번의 대회를 되돌아보면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많지만 모터스포츠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박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F1대회가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지 않은 생소한 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인 F1 마신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드라이버의 질주는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결합된 최고의 장면들을 연출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세계 모터스포츠 중 최고봉인 F1 그랑프리 두 번이나 치루고 7년 연속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자리매김한 자동차 선진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나 자신의 부를

상징하는 재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로서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모터스포츠를 매개로 사람·자동차 산업·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놀거리, 볼거리가 생긴 것이다. 그 축은 F1 대회가 열리는 경주장인 KIC (Korea International Circuit)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국내 유일의 1급 국제공인 서킷인 KIC라는 하드웨어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F1 그랑프리라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함으로써 국내 모터스포츠 문화를 한 단계 올려놓았고, 이제는 F1대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터스포츠 대회 및 자동차 관련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또 하나의 문화적 변화로는 우리 지역 레이스팀인 D팀의 창단이다. 이는 KIC와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향에 따른 새로운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KIC 주변 모터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 도시의 성공적인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도심권 환경을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기까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겠지만 한국에 자동차 문화 생태계가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였고 올해 세 번째를 맞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역시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문화, 나아가 자동차 문화의 비행(飛行)으로 이어질 것이고 F1 대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더 빠르고 힘찬 비행(飛行)이 될 것이다. 올 가을에 개최되는 코리아 그랑프리 참여는 더욱 성숙된 F1대회를 마련하는데 뜻 깊은 일이 될 것이다. (F1대회조직위원회 운영본부장)

6·25 참전국들에 받은 도움, 이젠 되갚을 때

왜일까.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6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그 후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당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종전전화 같은 시기에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6037명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병하여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의 희생을 내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폐허 속의 코리아를 보고 돌아간 병사들이 에티오피아든 미국 군인들이든 간에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아무도 몰랐으리라.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중 지금 처지가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도 그 빚을 갚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지난날 6·25 한국전쟁 당시 국토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준 세계 각국의 도움 덕분이다. 정부는 차체에 이런 참전국들 중 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을 선별해 그곳의

유망한 청년들을 국내 대학에 무료 편입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함은 물론, 산업 인력을 선별해 국내로 불러들여 우수기술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육성해서 돌려보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준 국가들에 대한 진정한 우정이며 보은이라고 생각한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안암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서구민이 북구서 투표한 황당한 민주경선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후보 경선이 혼란의 연속이다. 광주 동구에서 모바일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단 불법 모집이 이뤄졌고, 관계자가 투신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장투표 과정에선 각 후보 진영이 선거인단 동원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가하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현역의원 무소속 출마도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다 광주 서구 갑 동천동 일부 선거인단이 투표권이 없는 광주 북구 읍에서 투표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동천동은 지난해 10월 1일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라 북구에서 서구로 편입된 지역인데도 중앙당 시절의 가슴 떨림과 서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랑의 표현들을 떠올려 보자. 그 시절만큼 강렬한 열정은 아니겠지만, 숨어 있던 열정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이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방법을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바로 그 행복을 실천해 보자. (성교육전문가·심리학박사)

실 경우 상당한 과잉이 예상된다. 최경환 예비후보가 확인한 오류자만 10여명에 달한다. 모바일과 현장투표 선거 거부부를 확인하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경선 탈락 예비후보들이 중앙당에 재심심청에 이어 법원에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선을 불과 26일 남긴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을 민주당이 바로 잡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등을 돌릴 게 뻔하다. 민주당은 탈락 후보들의 재심청구에 따라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당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려 하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정당 지출에서 새누리당에 역전 당한 게 무원칙, 무쇄신, 무감동의 오만 탓이 아닌가. 광주(發) 후폭풍이 전국에 영향을 미쳐 총선에서 철뿔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경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

비리 얼룩진 시교육청 청렴 말할 자격 있나

진보교육감으로 청렴을 강조해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시교육청의 청렴 이미지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교과부 감사 결과, 교사특채 비리를 비롯해 그동안 학교와 산하 기관, 시교육청 본청 등에서 다수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말 실시한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공립교사 특채에서 '합격자 바뀌지기' 비리를 주도한 주무과장과 실무자, 심사위원(교사) 등을 징계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을 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장학관 특채 과정에서 위법 부당성도 적발해 기관경고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십 명의 교직원들이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해 적발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유치

원 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교육연구관과 장학관 직렬 미준수 인사도 지적됐다. 가히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직선 교육감의 인사 전횡과 교육계의 비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애초 내정했던 교사가 떨어지자 해당 교사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것이나 장학관 특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난 점은 인사 전횡의 방증이나 다름이 없다. 수백 명의 교직원들이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거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해 적발됐는지 한탄이 절로 나온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청렴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교과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 부당행위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며 스스로 정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 래야만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고, 미래인재도 제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어떤 인물들이 오는 4월 국민들을 위한 선장으로 낙점받을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마천은 한 나라의 흥망에 어떤 조짐이 있다고 했다. 나라가 흥할 때는 군자가 기용되고 소인은 물러나는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나며, 나라가 망할 때는 현인은 숨고 난신들이 귀신인 몸이 된다는 것이다. 사마천은 "안정과 위기는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달려 있고, 존망은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바른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그 정책을 사

다. 이것이 소위 사불문(四不問)정책이다. 민족(종족), 국적, 신분, 연령이 네 가지를 따지지 않고 유능하면 누구나 기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목공은 이 정책에 입각해 우(虞)나라의 현자 백리해를 전격 발탁했다. 백리해는 노예 신분에도 60세가 넘는 노인이었다. 백리해는 그 보답으로 다양한 인재들을 목공에 추천했고, 목공은 이들의 힘으로 춘추시대 패자로 부상하게 됐다. 이같은 목공의 인재정책은 진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으며 진나라의 정책 근간을 이루 400년 뒤 천하통일이라는 역사적 기초 역할로 작용했다. 한 나라의 흥망은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인영색을 일삼는 소인을 물리치고 현인을 기용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인재 선정을 할 수 있는 기틀인 토양을 개구고 외부적으로 통념이나 기득권을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고 옆에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시 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체로 발행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